

# 학교자율화로 교육의 다양성 실현 위한 연찬회

## 경기도포천교육청 포천아도니스호텔에서 1박2일간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오정순)은 7월 4~5일 포천아도니스호텔에서 관내 초·중 교장 46명을 대상으로 학교자율화초지에 따른 교육의 다양성 실현을 위해 연찬회를 가졌다.

첫째 날은 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중등교육과 김문성 장학관의 '초·중학교에서의 효율적인 생활지도 방안' 과 김태석 장학관의 '학교 자율화 후속조치에 따른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둘째 날은 군포 능내초등학교 조남우 교장의 '학교 수업장학에서 교장의 역할'이라는 강연과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 김홍원 정책본부장의 '방과후 활동 사업과 교육인적자원 체계'에 대한 특강에 이어 하계휴가를 대비한 학교 교육활동의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찬회에 앞서 오정순 경기도포천교육장은 "학교 자율화 후속조치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



경기도포천교육청은 7월 4~5일 포천아도니스호텔에서 관내 초·중 교장 46명을 대상으로 학교 자율화초지에 따른 교육의 다양성 실현을 위해 연찬회를 가졌다.

는 관리자의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하며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일선 학부모 및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학교 경영과 지도성을 발휘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좋은 교육민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 수 있다"며 "이

자율성 확대를 기본 취지로 학교 운영의 권한을 학교에 이양함으로써 책임경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 가는 데 있다.

이날 연찬회에 참석한 한 교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학교자율화의 추진 배경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수준에 맞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교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실시된 학교자율화 교육의 다양성 실현을 위한 교장의 학교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 자율화 계획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학교의 주인인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특색 있고 다양화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진로교육 특강 진학·지도 설명회

## 대경중학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실시

대경중학교(교장 김삼수)는 6월 26일 명품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진로 교육 특강 및 2009학년도 고등학교 진학·지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 70여명과 본교 교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1부는 2009학년도 자체 입시 설명회, 부모와 함께 하는 '인생은 아름다워' 프로젝트를 통한 Best Vision 구현 1교 1명품교육 안내, 그리고 개정된 특수교육법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를 실시했다.

2부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위원인 김한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학생 진로지도'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일방적인 강의 진행 방식을 탈피하여 청소년기 학생들의 바람직한 진로지도에 관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일부 토론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연회가 끝난 후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교사 모두 교육 내용에 대하여 매우 만족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3부는 정확한 답안교사와 학부모간의 일대일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시간에는 5월중 외부기관에 의뢰해 시행한 적성검사(1·3학년) 결과를 바탕으로 진학·지도에 관하여 학부모와 의견을 나누었으며 3학년의 경우 내신성적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한 예상 내신 성적을 학생별로 산출하여 학력향상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대경중학교 김삼수 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에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어 상설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자는 프로그램도 효과적이지만, 테마별 부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더



대경중학교는 6월26일 명품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진로 교육 특강 및 2009학년도 고등학교 진학·지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많은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동시에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히고 "학부모, 교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학생들에게 적시에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적성과 특기를 잘 살려나갈도록 안내자 역할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군부대 체험학습 나라 사랑 키워요"

## 도평초등학교 제58주년 6.25전쟁기념일 맞아



포천시 도평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제58주년 6.25전쟁기념일을 맞이하여 군부대 견학활동을 통해 나라 사랑을 키우고 있다.

포천시 도평초등학교(교장 양봉규) 어린이들이 제58주년 6.25전쟁기념일을 맞이하여 군부대 견학활동을 통해 나라 사랑을 키우고 있다.

도평초등학교 전교생 49명은 6월 26일 인근의 육군 제 10보병연대 7759부대 3대대를 찾아 호국보훈 영상자료 시청 및 군장비 견학, 생활관 및 군부대시설물 견학 등을 통해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체험활동을 전개했다.

어린이들은 부대에서 제공한 버스를 이용, 군부대로 이동하여 부대 소개와 함께 연병장에 전시된 군장 및 전투사상, 공용화기, 잠정차 등 각종 장비 및 물자들을 견학하고 이어 행정관, 생활관, 사이버전보관, 휴식공간, 식당 등의 순으로 견학을 마친 후 부대장과의

대화시간을 통하여 군의 생활일부를 체험, 학습하고 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다.

현혜선(6년) 어린이는 "군부대 안을 직접 보고 실제 군인 아저씨들의 생활모습과 여러 가지 장비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보람 있었다"며 "국군장병 아저씨들이 있기에 우리가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국군장병 아저씨께 고마운 마음이 생겼다"고 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박인수 중령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통일안보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가유기고

# 문화탐방과 영재수업

금요일은 일주일 중에 제일 좋아하고 기다리지는 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영재 수학 수업이 있고, 포천문화원 향토 문화 유적을 답사하는 날이기도...그런데 영재 수업을 가야 할지 학교 행사를 가야 할지.

영재 수학 수업은 흥미롭고 포천문화원 답사는 좋아하는 사회 과목 중에 영사가 있기에 몇일 전부터 고민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영재 수업에 늦지 않게 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결국은 두 군데 다 가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비쁜 일정으로 인해 많이 피곤했던 터라 버스에 몸을 실자마자 무거운 눈꺼풀이 내려앉고 말았다.

나의 동반자 mp3의 흐름과 수다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는 듯 하더니 뻘~양 크라켄 소리에 몽롱한 상태로 도착지에 내렸다. 파카온 태양이 몸과 마음을 더 나른하게 만드는 것 같았지만, 햇살 쏟아지는 숲길을 따라 걸으면 싱그러움 속에서 반기는 것 같아,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 라고 선생님께서 알려주었다.

일찍이 세상을 떠난 인평대군의 제문은 효종 숙종 영조 정조 네 임금에 직접 짓고 쓰신 어제 어필을 비석에 새긴 것인데, 인평대군 묘 좌측에 비석을 세우고 2.5m~3m 높이의 두개의 쌍비가 나란히 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용연서원(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0호)의 오성과 한음도 둘러보았는데, 어려서부터 벗이 라고 알고 있었는데, 벼슬 후배들이 서원을 철거하였지만, 포천에서는 용연서원만 철거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 곳을 많이 답사했지만, 이항복 선생의 알성문과에 급제한 것과 영정과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서원과 고려 명종 3년에 창건되어 포천을 선비의 고장으로 이끄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유교 문화의 향기를 뽐냈던 본산인 포천향교는 지금의 고등학교 교였으며 공자, 맹자 등 5성과 주돈이 정호, 정희, 주희 등 송조 4현 및 최치원, 정몽주 등 국명현 18위의 위패를 모신 곳이고, 임진왜란과 일제 36년간에 고통 속에서 소실되기도 했고, 6.25 이후 대성전과 명륜당을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일본은 왜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괴롭혔을까? 지금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일본인들에게 부끄러움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한 포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많은 문화재를 소중히 다루고 선비의 고장인 만큼 많은 인재들이 포천에서 배출되어 나라의 기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둘러서 답사를 마치고 차량을 향해 달려왔다.

영재 수업에 늦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도 수업에 조금 늦은 것이라곤 아파해서 전화를 미리 해 주셔서 한숨을 돌렸고, 피곤할 줄도 모르고 수업에 임했다.

4명이 발표하는 시간이었지만, 결석자도 있고, 자료준비도 하지 않아, 선생님의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선생님의 특수 주 사위를 이용한 게임과 패턴 블록을 할 때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기분이 풀려서 남은 수업 원서를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흥미로운 시간의 흐름은 붙잡을 수가 없었다.

몸이 힘들더라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결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먼 훗날의 멋진 모습으로 변해 있을 나를 상상하면서, 오늘밤도 이불을 끌어당긴다.



조은혜 학생행복지단 부대표 윤영조 6년

# 경북중 학부모 초청 간담회



경북중학교(교장 심동섭)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제간 간담회에 이어 7월2일 3학년 학부모를 초청해 1학기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시간을 갖고, 2학기 방과후활동 및 야간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1학기 방과후활동 및 일반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학생들의 성적향상과 바른 인성 함양에 힘써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또 여름방학동안에도 3학년 대상 수준별 교과보충을 계속 실시해 줄 것과 야간자기주도학습 시간에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역운동단체에 야간운동을 자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으며, 여러 논의를 거쳐 학부모와 학교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BEST 보육프로그램 ⑧ 원내 캠프 프로그램

# 여름의 풍경과 놀이가 있었던 우리들만의 캠프

알뜰달라든 수영복 없이도, 우린 여름을 개울가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보냈다.

수영 할 줄 몰라도, 그 개울가에서의 추억은 지금도 웃음 짓게 한다.

요즘 아이들은 인공적으로 너무 잘 갖추어진 시설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잘 짜여진 구조화된 캠프장의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특별한 추억을 새겨 주고자 원내에서 즐길 수 있는 캠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관외어린이집에서는 몇 년 전 1박2일 원내 캠프를 계획했다. 우선 부모들의 동의를 받고, 원내 캠프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계획을 부모교육과 통신을 통해 충분히 설명을 한다. 교사회의를 통해 시간에 따른 활동 계획, 준비물, 부모님 협조사항, 간식과 식단매뉴, 캠프아이러 준비 등 역할분담을 하고 원내 캠프가 진행된다.

아이들은 평상시처럼 등원하여 교사들로부터 캠프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나누며, 지켜야 할 일과 오늘 진행될 놀이에 대한 계획을 한다. 얼굴에 예쁜 페인팅을 하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뒤 휴식실에 모여 캠프 발대식을 갖는다.

우미 신청을 받는다. 도우미 어머니들은 원정장에서 오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진행방법을 듣고,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를 한다.

프로그램은 점심시간 전인 11시부터 12시30분, 점심시간 후인 2시부터 4시까지 '관외어린이집'을 시작으로 7시부터 9시까지 부모와 함께 하는 캠프아이러, 이튿날 아침 이루어지는 '산책하기'와 '미술활동'을 끝으로 원내캠프를 마무리한다.

'여름놀이마당'은 다같이 모여 '수영복 패션쇼'를 시작으로 '두껍아 두껍아', '씨름하기', '핑거 페인팅', '파리채 판화', '비누방울놀이', '내가 좋아하는 과일유스 만들기', '미니 수영장', '물총놀이', '모래와 물을 날라요', '뚝자리에 누워 구름 보기(휴식 프로그램)등을 자유롭게 놀이를 즐긴다. 물론 나무그늘 아래 돛자리를 준비해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녁 6시30분이 되면 부모님들이 오신다. 아이들은 저녁을 먹고 캠프아이러 복장을 한 뒤 마당으로 보인다. 동그렇게 모여 앉은 아이들의 박수를 받으며 부모님들의 입장이 있고, 부모 대표의 모닥불 점화에 이어, 아이와 부모님이 원을 이루어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행복한 웃음을 나눈다. 9시가 되면 원장이 축하의사를 전하며 먼저, 자모회장의 아이들에게 주는 글 낭독이 있고, 이어 원장의 부모님께 드

리는 글을 낭독을 한다. 부모님들께서 캠프아이러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주셨고, 장비들을 기꺼이 빌려주셨다. 부모님들은 귀가하면서 아이들은 부모님께 편지 쓸 시간을 갖고 행복하면서 곤했던 하루를 점교잡자리에 든다. 이튿날 아침 선생님과 다 일찍 일어나는 아이들의 소리, 서둘러 아침 산책을 떠나고, 미술활동 '책 만들기'를 하여 가정으로 보낸다.

이렇게 원내 캠프는 마무리되지만, 며칠 뒤 가정으로 우체국 소인이 찍힌 편지를 받은 부모님들께서 감동의 전화를 해 오신다. 원내캠프 프로그램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신다.

아이들도 사후활동으로 캠프에 대한 이야기, 그림 그리기, 역할극 해보기 등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릴 적 아름다운 여름날을 모닥불 앞에서 친구들과 선생님,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을 아이들은 유년의 행복 기억으로 갖게 해주는 것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원에서 중시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김경선 관외어린이집 원장 kksn64@nmail.net

# 함께 공부해요

## 음식지절(飮食之節) ⑧

禮記에 日君이 無故이든 不殺牛하며 大夫無故이든 不殺羊하며 士無故이든 不殺犬豚이君子遠庖廚하여 凡有血氣之類를 弗身踐也 하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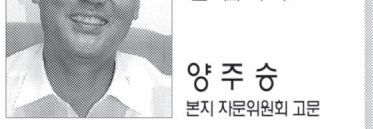
(庖:부엌, 도살장, 廚:부엌주, 주방, 凡有血氣之類:모든 살기가 있는 동물)

예기에 말하기를 "國君은 사유가 없으면 소를 잡지 않고 大夫는 사유가 없으면 양을 잡지 않으며 士는 사유가 없으면 개나 돼지를 잡지 않는다. 군자는 도수장과 주방장을 멀리하여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몸소 죽이지 않는다"고 했다.

제사, 빈객, 연향 등의 사유 없이는 國君은 소를 잡지 않았고 大夫는 양을 잡지 않았으며 士는 개나 돼지를 잡지 않는다. 그리고 군자는 도살장이나 주방을 멀리하여 직접 짐승을 죽이지 않는다. 그 사랑하는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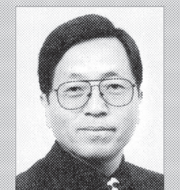
신이 동물에게까지 미치지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소나 돼지를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하여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여겼다.

이 글이 시대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옛 글이니 참고하여 교훈적인 내용만 응용하면 합니다.



양주승 박사 지문위원

#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 미국영어



- 수와 셈
- 17. (보기)
- (10) 제품 사양 (2)
- \* 가만, 봅시다, 10 평방 미터면?
- 렛씨어, 텐스퀘어미틀스?(Let see, 10 square meters?)
- \* 약 108 평방피트 인ပါ나
- 잇서바웃 원한드렛에잇 스퀘어위잇(It's about 108 square feet.)
- \* 주 원료가 무엇 인ပါ나?
- 왓리스터 메이저로우메터리얼스?
- <What is the major raw materials?>
- \* 천연 물가루와 수용성 바인더입니다
- 잇스메이플내츄럴스톤파우더스 앤워터베이스드 바인더스
- <It's made of natural stone powders and water based binders.>
- \* 무엇으로 뿌립니까?
- 스프레이 바이엇?(Spraying by what?)
- \* 특별히 만든 빨칠 도구가 있습니다
- 데일스어스스프레이어 스페셜리디자이너
- <There's a sprayer specially designed.>

문의: 윤 중성 (017-723-4977)colyoon@nate.com